

독도의 진실-5

-『신증동국여지승람』과 우산도-

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편

1.『신증동국여지승람』

1530년 발간된 조선의 공식 지리서인 『신증동국여지승람』에는 ‘우산과 울릉은 원래 한 섬’으로 기록되어 있어 일본학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. 원문은 다음과 같다.

우산도(于山島)· 울릉도(鬱陵島)

무릉(武陵)이라고도 하고, 우릉(羽陵)이라고도 한다. 두 섬은 현의 정동(正東) 해중(海中)에 있다.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으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. 바람과 날씨가 청명하면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[沙渚, 사저]이 역력히 보이고 순풍이면 이들에 도달할 수 있다.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원래 한 섬으로서 지방은 100리다.

『신증동국여지승람』권45, 울진현 우산도 울릉도조.

문장 머리말로는 ‘우산도’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설명문 중 ‘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으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. 바람과 날씨가 청명하면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[沙渚, 사저]이 역력히 보이고 순풍이면 이들에 도달할 수 있다’라는 부분은 모두 울릉도에 관한 설명이다. 여기서 우산도에 관한 설명문은 ‘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원래 한 섬으로서’라는 부분뿐이다. 울릉도

에도 보는 각도에 따라 세봉우리가 잘 보이고 봉우리머리의 수목이나 사저는 독도에는 없는 것이며 순풍이면 육지에서 이를 걸린다는 것도 울릉도에 대한 서술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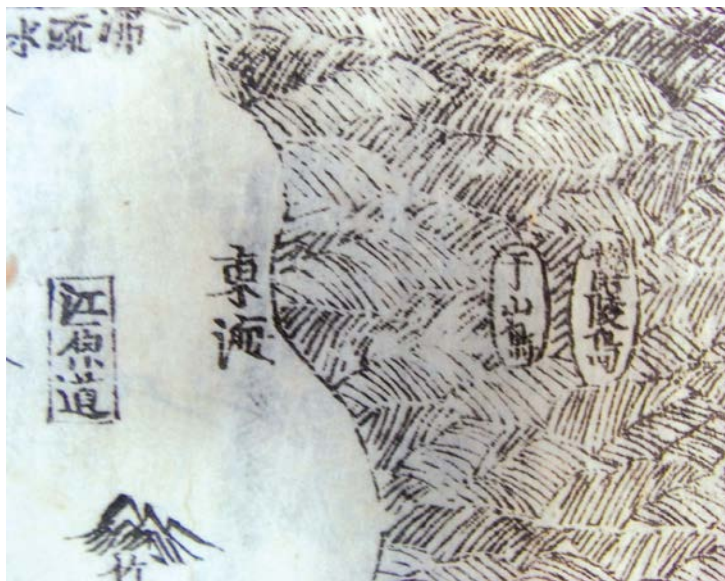
『신증동국여지승람』과 그 첨부지도인 '팔도총도'

그런데 『신증동국여지승람』과 그 첨부지도인 '팔도총도'를 보면 한반도 동쪽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잘 그려져 있다. 그리므로 본문에 나오는 '우산과 울릉은 원래 한 섬'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'일설', 즉 '풍문'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다.

그런데 '팔도총도'에는 원래 울릉도 동쪽에 있어야 할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다. 이 '팔도총도'를 지적하면서 일본 측은, '한국은 우산도(=독도)의 위치를 정확히 몰랐다. 한국이 말하는 우산도는 가공의 섬이며 울릉도를 잘못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'라고 주장한다.



팔도총도



'팔도총도'의 우산도, 울릉도 부분

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그 때까지 나온 '우산도'를 언급한 고문서에는 우산도와 울릉도의 위치관계에 대해 기술한 것이 없었다는 데 있다. 그리고 **조선은 1511년을 마지막으로 이후 1694년까지 약 180년이나 울릉도 수색을 하지 않았다.** 즉 울릉도로 약 180년간 배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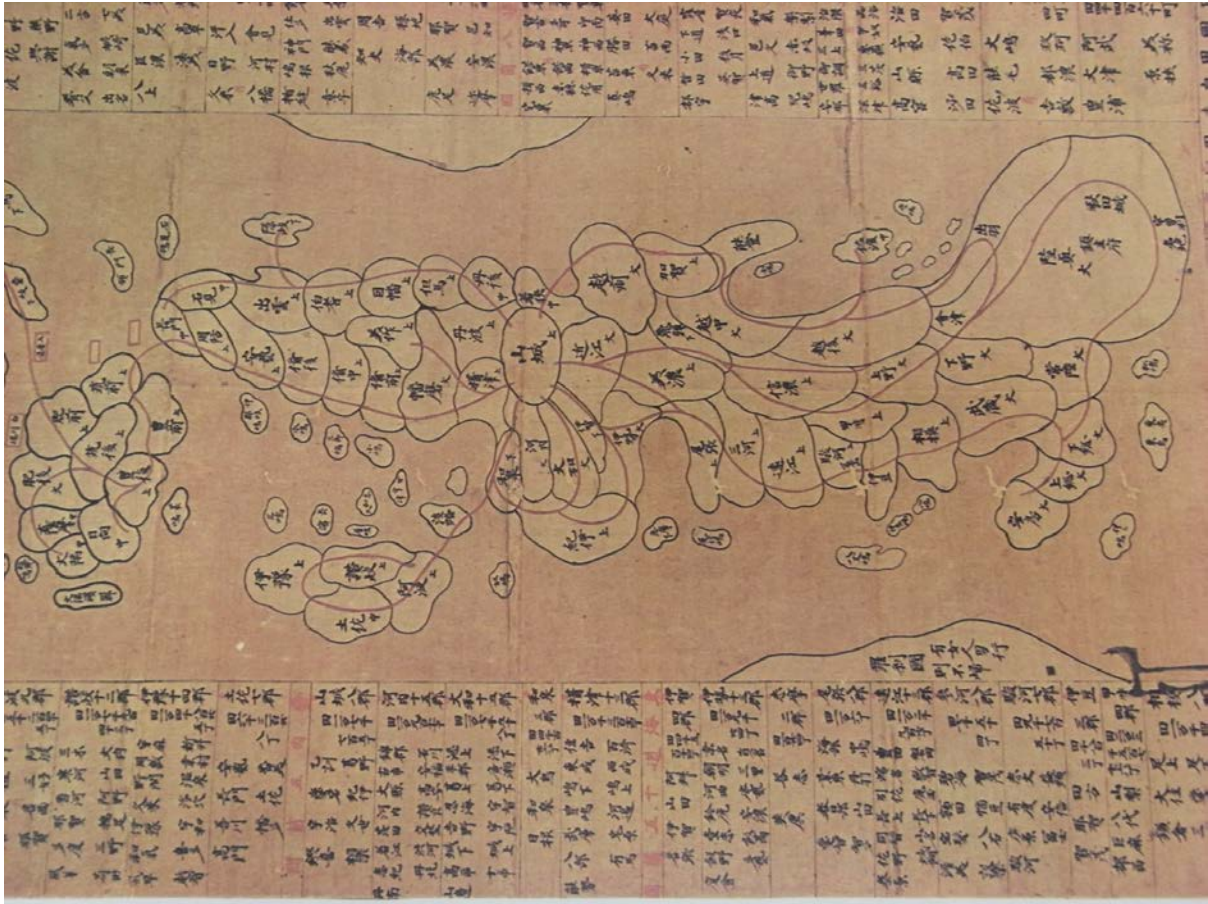
그러므로 태종과 세종시대에는 분명했던 우산도(=독도)에 관한 지견이 흐려졌다. 그 결과가 『신증동국여지승람』과 그 첨부지도 '팔도총도'에 나타난 불명확한 우산도인 것이다.

그런데 1530년의 조선의 상황이 그랬다면 일본 측 상황은 어땠을까? 일본은 당시 정확한 일본지도를 남겼다고 할 수 있을까? 아래는 8세기 이후 16세기까지 일본의 공식지도로 사용되었던 '**교키도(行基圖)**'다. 이 지도는 8세기에 교키라는 스님이 일본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작성했다. 그런데 **일본의 북서 쪽 경계는 오키(隱岐)섬**으로 되어 있다. 독도는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다.



교키도(8세기)

그리고 이 교키도는 시대가 진전함에 따라 더욱 일제 일본도로 볼 수 없는 형태를 갖게 된다. 아래는 16세기의 대표적인 교키도다.



교키도를 토대로 작성된 '대일본정통도'(16세기중반 작성)

교키도를 토대로 작성된 '대일본정통도'는 16세기 중반의 작품이고 마찬가지로 공식지도로도 사용되었다. 그런데 이 지도는 일본열도 상하에 **실제로는 없는 대륙을 그려놓았다**. 이것은 울릉도와 우산도(=독도)의 위치를 잘못 그린 '**팔도총도**' **이상의 큰 잘못을 저지른 지도**라 할 수 있다.

그리고 일본열도의 형태자체가 실제와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. 이와 비교하면 '팔도총도'는 오히려 나은 편이다. 일본 측은 남의 지도의 잘못을 거론하기 전에 자국의 지도의 큰 잘못을 먼저 '반성'해야 할 것이다.